

여름철 축산 분야 재해예방 총력

축사시설 사전 점검, 예방관리 요령 홍보 및 대책반 구성·운영

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

◆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는 폭염, 태풍, 집중 호우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'2020년 축산분야 재해 대응계획'을 마련하여 추진한다.

- 매년 여름철 폭염과 무더위로 인해 가축폐사와 생산성 저하 등으로 축산분야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,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축사시설 파손과 침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.

- 특히, 올 여름은 평균 기온이 작년보다 높고, 폭염 발생일수도 전년(13.3일)의 2배인 20~25일로 전망되는 등 극심한 더위가 예고되고 있어, 축산분야 재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.

* 폭염 가축피해: ('15) 2,666천마리 → ('16) 6,144 → ('17) 7,260 → ('18) 9,078 → ('19) 219

기상청 2020년 여름철 기상 전망

- 기온 : 평년(23.6℃)보다 0.5~1.5℃, 작년(24.1℃) 보다는 0.5~1℃ 높음
- 폭염일수 : 20~25일 ('19년 13.3일 대비 약 2배)
* 폭염일수 : '16년 22.4일, '17년 14.4일, '18년 31.4일, '19년 13.3일
- 강수·태풍 :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음, 태풍은 2~3개 국내영향

◎ 농식품부는 이번 여름철 폭염 등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 등 기상 정보와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요령 등을 농가에 제공하는 한편,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지자체와 협조하여 여름철 재해에 대비한 축사환경 관리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한다.

○ 폭염 등 기상특보 발령 시 농가 긴급 조치사항*을 생산자단체, 농협, 지자체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, 문자통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축산농가에 안내할 계획이다.

* 폭염 대비 가축관리 및 농업인 행동요령, 풍수해 대비 축산분야 안전관리요령, 정전 대비 축사 관리요령 등

○ 여름철 가축피해 예방 현장 기술지원을 위해 농촌진흥청(국립축산과학원) 주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(도진흥원, 시군기술센터)과 함께 현장 기술지원단(5개반 45명)을 구성, 6월~8월까지 전국 9개 권역을 대상으로 가축 사양관리 기술과 축사관리요령 등에 대해 컨설팅*을 추진할 계획이며, 폭염피해가 집중되는 7.6~8.7일까지는 축산분

야 중점기술지원단을 별도로 편성하여 폭염 피해가 심각하거나 장기화가 우려되는 지역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.

*그늘막·차광막 설치, 환기팬 추가 설치, 지붕 단열 보강, 지붕위 물뿌리기 시설설치 방법, 축사내 복사열 차단,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

◎ 폭염에 대비하여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냉방 시설 지원과 함께 지자체 차원에서 여건에 맞게 개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.

○ 농식품부에서는 선풍기, 환기·송풍팬, 쿨링패드, 안개분무, 스프링클러, 차광막(지붕단열제), 냉동고 등 시설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교체로 설치가 가능한 냉방장비에 대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우선 지원 할 수 있도록 지난 '18년부터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운영 중이다.

◎ 여름철 집중호우·태풍 등으로 인한 시설 침수 및 분뇨 유출 우려가 있는 축사시설, 공동자원화시설 등에 대해 농식품부, 지자체, 농축협, 생산자단체 등 민·관 합동으로 집중 점검 및 관리*해 나갈 계획이다.

* 축산악취관리농가(1,070호) 및 공동자원화시설 점검 및 축산환경개선의 날(매주 수요일) 현장 점검 등과 병행하여, 교육 및 지도 실시

○ 최근 호우나 태풍 등의 경우에 불법 가축분뇨 유출 사례가 있는 만큼, 집중호우 또는 태풍으로 인하여 퇴비사 등에 보관 중이거나 축사 및 농경지 주변에 적재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·액비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·점검*할 계획이다.

* 가축분뇨 또는 퇴비·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킬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

주요사례

- ① 양돈농가(1,500두)의 가축분뇨처리시설(퇴비사)이 훼손되어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유출('19.8월) → 고발 조치(벌금 300만 원)
- ② 양계농가(60,000수)에서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야적(비닐 도포)하던 중 집중호우로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유출('19.6월) → 고발 조치(벌금 300만 원)
- ③ 양돈농가(3,800두)에서 호우시 가축분뇨를 하천으로 무단방류('19.4월) → 고발 조치(벌금 800만 원)

◎ 농식품부에서는 올 여름 축산분야 재해 대응을 위해 농촌진흥청, 지자체, 농협, 축산환경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'여름철 축산분야 재해 대책반'을 구성해 10월까지 운영한다.

○ 재해 대응반을 통해 기상예보를 축산농가 등에 신속히 전파하고, 재해예방 요령 등을 안내하는 한편, 재해 발생 시 피해상황 파악과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해 각 기관·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상시 연락 및 협력체계를 마련했다.

참고1 폭염 대비 가축 관리요령

축사 환경을 쾌적하고 정돈 시 신속하게 대처합니다!

- 농장내에 있는 전체 사육: 대개 초고 배양 시 즉시 전체사육 방정함
- 축사 내외부의 안전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이 중요 함
- 안전구역에 있는 모든 유전자원은 청결함
- 축사내 소독기 유지,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번식사육을 생활화함
- 자가 발전장치 비상발전기 등 비상용 예비차량 확보
- 방풍서 차단장치 상태 및 유류유량 확인 시 즉시 점검
- 폭염의 소용돌이 칠 때 안전을 위해 유전자원을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
- 분간기 작동후 즉시 점검, 환기 등 환기수행 유무 점검
- 비상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을 경우 신속한 비상조치 수행
- 번식사육을 할 때 사육장내에 지면 내보내 환기조절
- 번식사육을 할 때 사육장내에 지면 내보내 환기조절
- 번식사육을 할 때 사육장내에 지면 내보내 환기조절
- 번식사육을 할 때 사육장내에 지면 내보내 환기조절

고온기 가축환경 관리

- 여름철 많이 발생하는 질병
- 소: 열사병, 열사병, 위장장애, 호흡기장애 등
- 돼지: 열사병, 폐사, 열사병 등
- 말: 열사병, 폐사 등
- 가축장내의 쾌적 관리
- 축사 환경을 쾌적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 번식률과 사육 효율성 향상
- 사육장내에 축사 환경을 쾌적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 번식률과 사육 효율성 향상

✓ 가축안전관리 및 질병예방
동물안전관리 등 가축안전관리에 신고하여 방역관리 사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 신고전화: 1588-4000

농촌진흥청 동물안전관리 363-228-1014
농촌진흥청 동물안전관리 363-228-7023

여름철 폭염 가축 관리는 이렇게!

- 여름철 가축이 쉽게 죽어가고 폭염에 대비한 가축은 고온스트레스 예방한다
- 고온스트레스를 방지하면 사육의 생산성이 높고, 질병이 줄어든다
- 사육을 위해 고온스트레스를 예방하고, 고온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
- 폭염, 휴면, 열사병, 열사병 등 고온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

농촌진흥청 동물안전관리 363-228-1014
농촌진흥청 동물안전관리 363-228-7023

고온으로 가축에게 생길 수 있는

고온 스트레스

▶ 열사병

▶ 열사병

▶ 열사병

▶ 열사병

▶ 열사병

▶ 열사병

▶ 열사병

▶ 열사병

▶ 열사병

고온기 가축 및 축사 관리는 이렇게 합니다!

- 환온도 낮추기: 충분한 가늘, 지붕을 낮추기, 차양막 설치, 적정 사육두수 유지
- 물을 충분히 공급: 신선한 물을 공급, 사육장 유수 온도기, 소용돌이 방지
- 가축 건강 관리: 농장 전체에 정기적으로 소독, 방염, 방충제 살포

축사 관리요령

- 사육장 물줄 부속하고 무열한 차양막을 설치하여 환기 온도 낮춤
- 축사 내외부의 청결과 축사 유수 온도기, 소용돌이 방지
- 단열재의 손상 여부를 정기 점검하여 열차량 유출을 막음
- 물줄을 자주 청소해주고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공급하여
- 사육장 내외부의 청결과 축사 유수 온도기, 소용돌이 방지
- 사육장 내외부의 청결과 축사 유수 온도기, 소용돌이 방지
- 사육장 내외부의 청결과 축사 유수 온도기, 소용돌이 방지

축사 관리요령

- 환온도 낮추기: 충분한 가늘, 지붕을 낮추기, 차양막 설치, 적정 사육두수 유지
- 물을 충분히 공급: 신선한 물을 공급, 사육장 유수 온도기, 소용돌이 방지
- 가축 건강 관리: 농장 전체에 정기적으로 소독, 방염, 방충제 살포

참고2 풍수해 대비 축산분야 안전관리 대책

사전대책

- 붕괴위험이 있는 축대보수 및 축사주변 배수로 정비
- 목초는 9cm정도 높이로 베어주고 초지나 사료작물 등은 배수로를 정비하여 습해 방지
- 축사의 지붕과 벽을 손질하여 비 피해 예방
- 깔짚을 자주 갈아주어 축사를 청결히 하고 축사 소독 실시
- 사료는 비가 맞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 변질을 방지하고, 변질된 사료는 먹이지 않도록 함
- 축사 주위 배수로 정비, 침수우려 가축 안전지대 대비
- 가축분뇨, 퇴비 유실 대비 누수 방지막 설치 및 피복 등 조치

사후복구대책

- 축사 침수 시 신속히 가축 대피
- 응급복구 및 철저한 예방접종 실시
- 젖은 풀이나 변질된 사료를 주지 않도록 하여 고창증 예방
- 땅이 질고 습한 초지에는 방목을 시키지 않도록 하여 목초피해 및 토양 유실 방지

참고 3 폭염 시 농업인 행동요령 대책

무더울 땐 이렇게 준비하세요!

○ 사전 준비사항은

- 집에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본인과 가족의 열사병 등 증상을 체크하세요.
- 냉방기기 사용시는 실내·외 온도차를 5°C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세요.
(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°C~28°C가 적당)

○ 폭염주의보 발령시

| 농작업 현장에서는

-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는 짧게 자주 가지세요.
- 시설하우스나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시에는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세요.
- 농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을 방지하세요.
- 작업중 매 15~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(염분)을 섭취하세요(알코올, 카페인 이 있는 음료는 금물)

| 하우스·축사에서는

- 축사 천장에는 스티로폼 등 단열재를 부착하세요.
- 창문을 개방하고 선풍기나 팬 등을 이용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하세요.
- 돈사, 계사 천장에 물분무장치를 설치하여 복사열을 방지하세요.

○ 폭염경보 발령시

| 농작업 현장에서는

- 고령, 독거노인, 신체허약자, 성인병환자 등은 야외작업이나 시설하우스 작업을 하지 않도록 가족과 이웃에게 알려주세요.
- 시설하우스나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시에는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세요.
-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오후2시~오후5시 사이에는 시설하우스나 야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세요.
- 야외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빠른 동작을 삼가세요.

| 하우스·축사에서는

- 가족에게는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비타민, 광물질을 섞은 사료를 먹이세요.
- 곰팡이가 피거나 오래된 사료는 공급하지 마세요.
- 가축 폐사시는 신속하게 시군구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방역기관의 조치에 따르세요.
- 축사 등의 분뇨제거와 건조상태를 유지하세요
- 전기누전과 합선,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우려되므로 냉방과 환기시는 전기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하세요.
- 하우스내 피해예방을 위해 차광시설, 점적관수, 수막시설을 가동하세요.
- 노지 재배채소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관수작업을 실시하세요.